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을 보내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 ----- 430장 “주와 같이 걸가는 것” ----- 다 같 이

- 1 주와 같이 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마침 -----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가정의 추석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목사 : 홍순용 목사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0길 46 | 전화 : 02-2244-7265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예배초대	-----	가족 중에서	-----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같이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	가족중에서	-----	다 같이
-----	-------	-------	-------	------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36:1-3(구약 902p)	-----	인 도 자
------	-------	---------------------	-------	-------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나눔 -----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족 -----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36편에는 총 26회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감사(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다(Think)’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 일까요?

1.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때론 실패인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롬8:28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옥의 멸망 가운데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하시어 구원하신 선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때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 우리 가족 모두 한 치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Think)할 때 감사(Thank)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한 추석의 풍성한 열매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